

## 농림수산식품부



### 닭·오리 고기 포장유통 전면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0.6.30)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하루 닭·오리 도축량이 5만 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 무가 2011년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또한, '계란제품위생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신설하여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전문영업인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

지난 6.7일 발표한 농산어촌 100대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그 동안 금지해온 포장축산물의 재분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돼지고기 저지방부위로 만든 생햄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충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서 위입된 바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

아야 할 영업자의 범위를 포장축산물을 단순히 운반·보관·판매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영업자로 정하여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인터넷교육도 병행하고, 영업 재개업, 유사 영업의 추가·변경 등의 경우에는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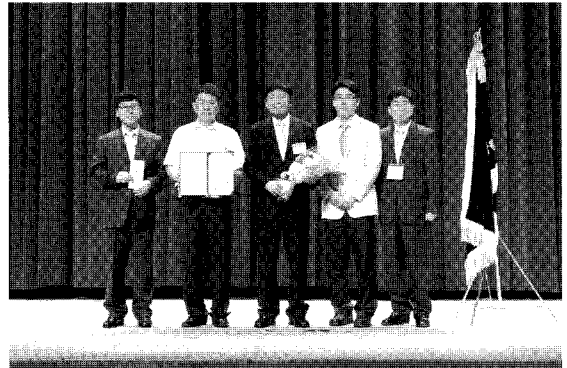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6.30~7.20)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후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일인 2010.11.26일(포장유통, 식용란유통판매업 등 일부규정은 2011.1.1일 시행)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인사이동】

• **과장급 승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김병한(검역원기획조정과) ▲검역원 수의생명공학과장 이희수(검역원 축산물규격과).

•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이득섭(품관원 시험연구소장) ▲정보화담당관 최이규(품관원 품질검사과장) ▲농촌사회과장 김승환(연수원 전문교육과장) ▲유통정책과장 임정빈(식량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민연태(농산경영과장) ▲농산경영과장 서해동(지도안전과장) ▲채소특작과장(품종보호 상임위원겸임) 김정욱(축산정책과장) ▲과수화훼과장 김완수(행정관리담당관) ▲축산정책과장 신현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응본(과수화훼과장) ▲수산정책과장 정복철(자원환경과장) ▲지도안전과장 서재연(농촌사회과장) ▲양식산업과장 임광희(허베이보상지원팀장) ▲자

원환경과장 박범수(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장  
 서장우(양식산업과장) ▲농협경제사업지원팀장 이시  
 혜(농업금융정책과)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지  
 원단 파견 방태진(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장 강인구(수산정책과장) ▲품  
 관원 품질검사과장 김기훈(품관원 경북지원장) ▲품관  
 원 시험연구소장 이영구(농림수산식품부) ▲품관원 경  
 북지원장 구돈회(품관원 농업경영정보과장) ▲농업연  
 수원 교육기획과장 이천일(유통정책과장) ▲검역원 축  
 산불안전과장 이지우(검역원 중부지원장) ▲검역원 감  
 시조사과장 유제일(검역원 서울지원장) ▲검역원 위생  
 정보과장 전종민(검역원 호남지원장) ▲검역원 질병관  
 리과장 정병관(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장) ▲검역원 동  
 물약품관리과장 이기욱(검역원 인천지원장) ▲검역원  
 서울지원장 김창섭(검역원 감시조사과장) ▲검역원 인  
 천지원장 임경중(검역원 질병관리과장) ▲검역원 중부  
 지원장 이홍섭(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 ▲검역원 호남  
 지원장 이상진(검역원 역학조사과장) ▲검역원 권창희  
 (검역원 위생정보과장) ▲검역원 최정업(검역원 수의생  
 명공학과장) 이상 1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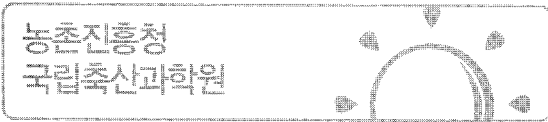


사례를 발표했다.

행정 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37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고 유사업(50%)과 공통관리역량(50%)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행정형 연구기관 중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기관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과감히 개선하고 조직 의 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 단을 운영했으며, 조직문화 선진화 추진, 「푸른농촌 희 망찾기 운동」 활성화,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방식 등을 추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최우수 기 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직원 모두 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인 국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우뚝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워크숍서  
 최우수기관 수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행정안전 부가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으로서 선정돼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0년 책 임운영기관 워크숍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  
 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위한 규제에 동의 81.7%**

##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입을 72.3%가 희망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금년 5월 한국꺾림에 의뢰하여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은 예상보다 적극적이고 관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사육실태’를 보면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의 비율은 17.4%로, 이중 94.2%의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으며, 사육 가정당 평균 사육 마리수는 개 1.47마리, 고양이 1.92마리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더 많은 수를 보유.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개의 경우 61.2천원, 고양이는 44.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구입 경로는 ‘친지·가족·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한 구입(56.6%)이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26.0%)한 것 보다 많아, 가정에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에 대하여는 개 사육 가정의 52.8%가 동물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그 이외 응답자는 등록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장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소유자 및 동물을 국가에 등록하게 하여 유기동물 발생 억제, 예방접종 관리,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및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제도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기를 희망할 때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입장은 59.2%가 찬성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층에서는 74.0%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유기동물 입양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유기동

물은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다(26.3%)’, ‘유기동물은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가 어렵다(14.9%)’ 순으로 나타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운용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4.7%(반려동물 소유자는 62.6%)로 나타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자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2.9%가 찬성하였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 등에게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93.8%)가 동의하였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81.7%가 찬성하였다.

동물학대를 반대하거나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는 71.1%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층에서는 90.4%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62.0%)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동물보호 홍보(48.1%), 동물보호 교육(20.3%) 순으로 나타나 동물보호 교육·홍보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국민의 상당수(72.3%)는 쾌적한 상태에서 생산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구입 의사를 보여, 농장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93.7%)가 축산물 구입 시 사육환경과 사육 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여 축산물에 해당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예상보다 적극적이고 관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빠른 시일 내에 동물보호·복지가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만큼 동물보호의식 확산을 위하여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동물학대 방지 및 농장동물 복지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소비자시민 모임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 안전성, 원산지 등 품질관리 평가기능 제고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호, 이하 ‘품관원’이라 한다)과 (사)소비자시민 모임(회장 김재욱, 이하 ‘소시모’라 한다)은 7.9일 농식품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식품의 안전성, 원산지표시 등 양 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농식품 안전성관리, 원산지 및 인증품 표시관리 업무의 신뢰 향상과 아울러 상호간 업무발전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업무협약서는 ▲농식품 안전성 조사 및 연구 분야 ▲농식품 유해물질 모니터링 ▲농식품 관련 인증 및 표

시 관리 ▲농식품 원산지 및 GMO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10. 7월부터 양 기관은 농식품 유통·판매과정에서 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농식품 품질관리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품관원은 소시모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소시모는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농식품 모니터링과 품질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상반기 수입식품 신고 현황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상반기 수입 식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수입식품 금액은 61억52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억57백만달러)에 비하여 52%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1차 가공을 거쳐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 대두, 옥수수 등의 곡류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최대 수입국은 호주로 15억29백만달러이며 미국 12억96백만달러, 중국 10억23백만달러, 일본 2억60백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중국, 미국, 호주, 브라질, 일본 순이었다.

# News

[상반기 수입식품 신고 건수, 중량, 금액 및 부적합 현황]

년도	수입 건수		부적합 비율(%)	중량(천톤)		금액(백만달러)	
	수입 건수	부적합 건수		수입	부적합	수입	부적합
2010.6.30	141,995	579	0.41	6,463	3	6,152	7
2009.6.30	120,526	545	0.45	5,612	2	4,057	5

※2009년 총 255,341건, 11,302천톤, 8,434백만, 부적합 1,229건(0.48%)

식약청은 올 상반기 수입건수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수입식품 부적합율은 0.41%로 전년 동기(0.4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수입건수는 중국이 40,746건, 일본 22,947건, 미국 21,634건, 프랑스 5,730건, 이탈리아 4,919건 순으로 전년도 동기와 유사하였다.

- 가장 많은 건수로 수입된 품목은 식품첨가물인 혼합제제(7,763건, 5.5%)였으며 그 뒤로 포도주를 포함한 과실주(7,042건 5.0%), 과자(3,954건, 2.8%), 배추김치(3,913건, 2.8%) 순이었다.

- 기구류의 경우 스테인레스제(5,554건, 3.9%), 도자기제(4,440건, 3.1%) 순으로 수입되었다.

수입 중량으로 분류하면 미국 2,244천톤, 호주 1,223천톤, 중국이 1,130천톤, 브라질 289천톤, 필리핀 215천톤 순이었다.

- 이를 품목으로 분류해 보면 옥수수(알곡) 1,077천톤, 밀(제분용) 1,036천톤,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978천톤, 대두 649천톤, 천일염 205천톤 순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헝가리 순이고, 품목은 밀(제분용),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옥수수(알곡), 대두, 쌀(매현미, 알곡) 순임

식약청은 2010년 상반기 수입 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합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였다.

수출국가, 국가별 제조업체, 수입품목에 따라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여 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3/4분기에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조정하였고, 검사항목도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를 고려하여 중점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원천적으로 양질의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수입단계 시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당 수출국에 공유함으로써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방역본부, HACCP 전문과정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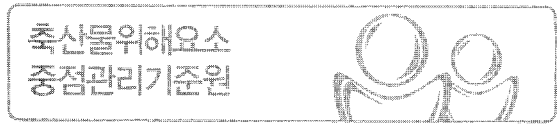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7.14~7.16일 3일간 45명의 가축방역사를 대상으로 HACCP 전문가 과정과 축사환경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호 본부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HACCP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축산농가 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축사환경개선 서비스를 통한 농장생산성 향상과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축위생방역지원 일류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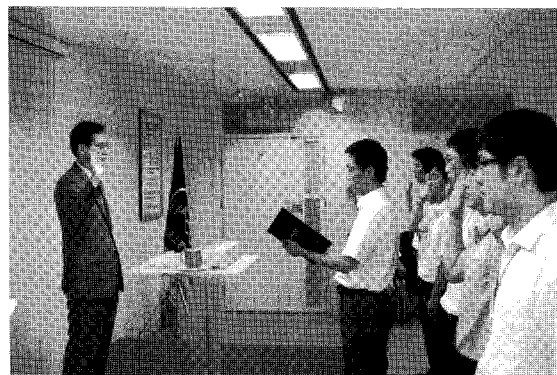


금연 교육은 HACCP 개요 및 심사절차, HACCP 정책 및 고시해설,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 준비 5단계 · 7원칙 이해, HACCP 실습, 평가기준 이해, HACCP 지정업체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축방역사들은 HACCP 기술지도와 축사환경컨설팅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축사환경 개선지원사업 및 도축검사결과 피드백 사업을 연계한 고객감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HACCP 전문과정 교육을 지난해 출장소팀장 등 51명과 금년 45명 이외의 가축방역사 전원에게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으로 일석이조, 「담배 끊으면 건강도 챙기고 격려금도 받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7월 5일 8층 대회의실에서 소속직원 중 흡연자 21명을 대상으로 금연 서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금연운동을 떠나기로 하였다.

이번 금연운동은 외부적으로는 축산물HACCP기준원이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담시 흡연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흡연자 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개되는 자율참여운동이다.

금연운동 참가자들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 4단계의 금연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최초 3만원이 입금된 기념통장 지급과 더불어 단계별로 금연을 성공할 경우 매 단계마다 3만원씩 성공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끝까지 성공할 경우에는 표창 및 격려 등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담배와 관련된 대화 금지, 재 흡연 감시, 응원문자 격려, 금연피해 사례 모집, 금연포스트 공모 및 부착 등으로 금연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흡연에 대해 개인적인 측면(금전, 질병에 노출, 위생 등), 대인 관계적 측면(간접 흡연, 불쾌감, 공해유발 등), 조직적 측면(이석, 건강, 타 직원 불편 등)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오늘의 금연 서약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금연에 꼭 성공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한식당 네트워크 통해 식재료 수출 확대” aT, “유통업체 MOU 늘려 고속도로망 확충”**

미국 한식당들의 한국 식재료 공동구매가 추진될 전망이다.

# News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최근 뉴욕에서 '뉴욕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산 농식품 공동구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회원들은 "한식당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산 식재료의 공동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에 설립된 뉴욕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400여 뉴욕 한식당 가운데 60여개 업체가 가입해 있는 상태다. aT는 "공동구매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농식품 수출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뉴욕뿐 아니라 2,000여개의 한식당이 모여 있는 LA에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는 또한 기존 교포시장을 넘어 미국 내 타민족 및 현지인 시장으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T는 최근 미국 최대의 아시아 식재료 유통전문회사인 'True World Foods', 아시아 및 히스패닉계 최대 유통업체인 'Walong Marketing'과 각각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국 29개주 8,000여 식당 및 슈퍼마켓 체인에 한국산 농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넉치, 김, 참치 등의 한국 수산물에 미국 내 일식당 등으로 판로가 확대됨으로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 현재 aT는 미국, 유럽 등 8개국 22개 대형유통업체와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5개 유통업체와의 협약을 추가할 계획이다. aT는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0 Buy Korean Food'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진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판촉행사 추진, 신규유망품목 발굴 등 후속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장배 aT 사장은 "대량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농식품 수출고속도로' 확충이 중요하다"면서 "마트나 슈퍼마켓, 식당 등 현지인 소비자들이 한국 농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도로 확대해 농식품 수출시장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